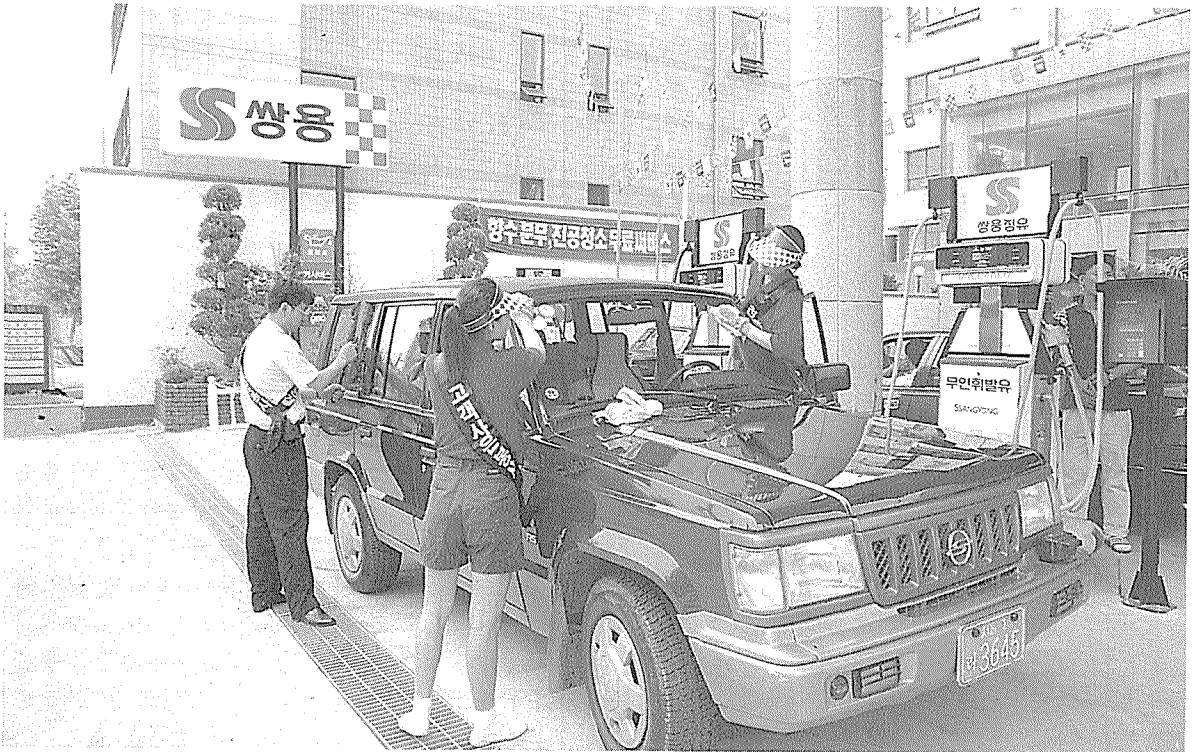


'93년의
결산

쌍용정유

조하경영평가의
○○○○
최우수 기업상
○○
받고
○○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주유소 3C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지나온 길을 반추해 본다는 것은 언제나 미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물처럼 무색투명하게 도도히 흘러 갔다고 여겨지지만 그 속에선 때론 바위를 깎아내리는 격렬함이, 때론 물결마저도 감싸는 안온함이 느껴진다.

쌍용정유는 참으로 큰 일들을 겪으면서 계유년 한해가 '후딱' 지나갔다.

쌍용정유인들의 지난한 노력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기보수기간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을때 전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이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전기를 마련한 저력을 통해서,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한 증류탑속에서 가동을 달성을 위해 사우들이 흘린 팔죽같은 땀속에서, 국내 상장기업중 최우수기업이라는 명예를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쌍용인들의 달아진 구두뒤축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다.

그러면 계유년(93년) 한해동안의 쌍용정유인들의 발자취를 좀더 구체적으로 더듬어보고 갑술년(94년) 새해설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최우수기업상 수상

우리회사는 지난 6월 19일 대신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제10회 대신종합경영평가」 시상식에서 초대형사부문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였다.

대신경제연구소는 매년 모든 상장기업(약 700개사)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관련항

목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해오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지난 91년도에도 상장기업중 1인당 부가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이어서 92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상장대기업중 경영실적이 가장 양호한 기업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1980년에 상업가동한 후발정유사이면서도 13년만에 상장기업중 최우수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실로 감동의 드라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성황하에 해외 CB 1억 5천만달러 발행

93년 7월 20일 한국에서 발행된 해외전환사채(CB)중 최대규모인 1억 5천만달러(약 1,200억원) 규모의 해외 CB를 발행하였다. '93.6월말 정부승인을 받고 7월초부터 일주일간 홍콩, 파리, 제네바, 취리히, 런던, 에딘버러등 6개 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억 5천만달러 발행모집에 8억 4천 8백만불이 신청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와같은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CB 발행은 쌍용정유가 얼마나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회사임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 윤활유 신제품(드래곤 SH) 생산·출하

최고급 가솔린 엔진오일인 「드래곤 SH」(지금까지는 SG급이 최고급

품이었음) 윤활유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생산·출하함으로써 가솔린 엔진오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품은 유향, 질소, 방향족 물질등이 거의 없는 저공해 제품으로서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기존 윤활유보다 2.7%의 연료소모를 개선하고 유동점 강화제가 첨가되어 엔진수명 연장과 출력 향상 및 저온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윤활유의 원재료인 윤활기유를 세계적 명성을 갖고 생산공급하고 있는 쌍용정유(현재 쌍용정유와 현대정유만이 윤활기유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음)가 이룩해낸 개가이며 향후 윤활유시장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주유소 3C운동의 지속적 전개

'주유소 3C운동'이란 고객에게 친절한(Close) 주유소, 고객에게 편리한(Convenient) 주유소, 고객에게 청결한(Clean) 느낌을 주는 주유소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주유소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자는 고객만족 경영 혁신운동으로서 지난 9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비롯 실시기간은 짧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미지와 고객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쌍용정유 주유소의 단위당 판매량이 증가하여 3C

시범주유소로 선정된 47개 주유소가 국내전체주유소보다 훨씬 높은 20.8% (국내전체평균 : 14.0%) 라는 판매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쌍용정유만이 갖고 있는 품질고급화 이미지를 살리면서 서비스차별화를 시도하는 이번 3C운동은 이제 일 반적인 이미지로 정착하게 되었다.

• 공장사고및 긴급복구

93년 4월 5일 정기보수실시중 제 2증류탑이 기울어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탑내에서 공기와 잔재물의 자연연소반응에 의한 국부가열로 추정되는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국내·외 기술진에 의한 긴급복구팀을 구성, 대책수립에 나서는 등 총력적인 복구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5월 20일부터 가동을 재개하여 다시 국내수급의 안정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계기로 공장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공장업무 대책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사고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여준 쌍용정유의 신속하고 총체적인 위기관리능력은 쌍용정유의 저력을 실감케 하여 주었다.

• 쌍용정유 노동조합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노동조합은 93년 6월 7일 올해 임

금인상율을 1.5% (호봉승급분제외) 를 타결하고 1.5%를 1년동안 회사측에 자진 반납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통분담을 요구한 신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난 4월 증류탑 사고로 큰 피해를 본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 이와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 제 3정제시설 (20만B/D) 증설허가 취득

93년 8월 27일 상공자원부로부터 1일 20만배럴의 제 3정제시설 증설허가를 취득하여 총생산능력이 443천BPSD (Barrels Per Stream Day) 가 됨으로써 쌍용정유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3정제시설은 올해 공사에 착공, 94.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동정제시설이 완공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B-C 크래킹센터가 완공되는 95년부터 쌍용정유는 자타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 확실하다.

이상과 같은 쌍용정유의 '93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련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성숙한 면모를 보인 한 해」였다고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4월의 증류탑사고가 회사경영에 하나의 시련이었다면,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분을 자진 반납하여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동참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발휘하였고, 안정관리·시스템 등 공장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신운동이 펼쳐졌으며, 정부로부터 제 3정제

시설 증설을 허가받아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것 등, 뜻하지 않은 사고를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쌍용정유의 성장기반을 다진 성숙한 면모였다.

갑술년 새해에도 쌍용정유인들은 꿈을 갖고 힘차게 나갈 것이다.

쌍용정유인들은 쌍용정유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세계속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항상 마음 한편에 묻고 있으며 정유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도태를 지향하면서 갑술년 새해맞이를 할 것이다.

갑술년 새해 쌍용정유는 제 2의 성장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신규프로젝트 (중질유분해탈황센터 및 제 3정제시설 건설) 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고급화에 주력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 영업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아울러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3C (친절, 편리, 청결) 운동을 지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회사의 독창적인 제도인 월례협의제도 (부서단위로 월에 한번 회의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는 제도) 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공동체문화가꾸기 5단계 과정」을 조직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등 기업문화의 정착화를 이루어 인간존중의 직장문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제 쌍용정유는 환태평양권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정유회사로 성장해 갈 것이다. ●